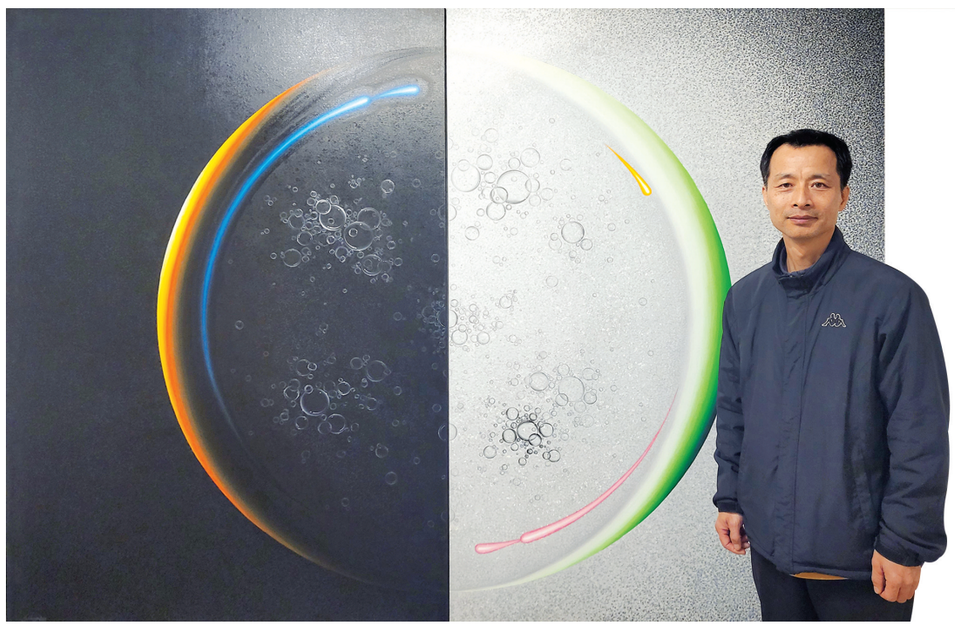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인간의 욕망 예술로”

신창운 화가, 18번째 개인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멸·생’ 우주적 차원에서 탐색


신창운 작가는 “이번 전시는 인간 심연에서 꿈틀대는 욕망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본질’, ‘화두’, ‘염원’, ‘성찰’….

신창운 화가를 인터뷰하면서 떠오른 말들이다. 무겁다. 아니 무겁다기보다 진지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모든 예술작품은 작가를 닮기 마련이다. 작가의 잠재의식 속에 드리워진 DNA는 무의식 중에 작품에 전이된다. 아무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 해도 그 작가만이 가진 DNA를 숨길 수 없다.

“감각적인 세상의 현란함보다 내면으로 깊숙이 침잠했죠. 역사의 아픔과 공동체의 붕괴, 인간 심연에서 꿈틀대는 욕망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전시장에서 만난 신 작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에게선 고전적인 작가의 모습이 겹쳐진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바꾸지 않는 고집이 읽힌다.

신 작가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예술가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인류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의 ‘진리’에 대한 탐구는 이후 국외로까지 확대된다.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인턴쉽과정을 수료했으며 인도 내셔널뮤지엄 인스티튜트 과정을 졸업했다. 그림에서 다분히 사변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건 그런 연유다.

그는 “창작의 산물인 작품은 삶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진실하게 표현한 시대의 기록물”이라며 “미술의 가치는 새로운 재료의 발견과 그것의 사용이 아닌 작품을 통해 대중과 창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라지고 나타나다’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 주제는 ‘Disappearance ∞ Appearance’. 우리말로 하면 ‘사라짐과 나타남’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무한대를 뜻하는 ‘∞’이 사라짐과 나타남 사이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조변석개하듯 수시로 바뀝니다. 멸(滅)과 생(生) 사이라는 유한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욕망을 우주적 차원에서 탐색했어요.”

이번 작품은 대부분 숯으로 표현한 회화들이다. “자신을 불태워 주위를 밝히는 숯”은 그의 작업에 있어 매력적인 재료다. “열기가 사라진 숯이라도 불씨를 대면 다시 환한 생명력으로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 견주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라지는 것은 다시 나타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숯 조각 작업은 먹과 아크릴, 칡넝쿨을 사용한 회화작업으로 발전했다. 2021년 ‘Burned-Out Desire’(소진된 욕망)라는 주제로 진행한 개인전에서는 표현매체를 유화로 확장해 화려하게 불타올라 소진된 욕망의 실체를 초점화했다.

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전의 화면구성법과 서사의 구조를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풀어놓았다”며 “화면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던 상징들의 비중이 작아지고 단색조의 여백에 화려한 색체의 물거품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라지고 나타나다’로 명명된 40여 점의 작품들은 동일한 제목이지만 조금씩 차이를 드러낸다. 오색의 영롱한 물거품, 완전히 타버려 비정형으로 남은 숯조각, 그림 이면에 얼핏얼핏 보이는 부처의 상 등은 신 작가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말한다. “생명을 다하면 죽음이고 생기를 불어 넣으면 삶이다. 죽음과 삶은 영원히 반복된다. 이는 내세를 믿는 종교적 해석이다. 윤회의 원리에서 보면 죽음과 삶을 분리할 수 없기에 생사의 분별은 의미가 없다. 생과 사는 공존한다.”

한편 신 작가는 광주신세계미술상,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청년작가상, 올해의 청년작가상(광주시립미술관) 등을 수상했으며 국제선정작가 80인전, 한국-베트남 국제교류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민중畵 민주化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성훈 작곡가가 지휘한 이전 공연에서 빛고을페스티벌이 리허설하는 모습. 〈김성훈 제공〉

‘창작가곡,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김성훈·온챔버오케스트라, 16일 서빛마루문예회관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창작가곡’을 연주하는 리사이틀이 열린다.

작곡가 김성훈·온챔버오케스트라 빛고을창작공연 퀸스아트는 ‘창작가곡, 아름다움을 노래하다’를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서빛마루문예회관(서구 풍암동 산13)에서 펼친다.

공연은 김성훈 작곡가가 광주·전남 시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만든 창작 가곡을 클래식 선율, 성악으로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독창곡 8곡, 중창곡 6곡, 현악5중주 한 곡이 레퍼토리에 있다.

임원식 시 ‘무등산’과 이소연의 ‘한민족 서사시’는 바리톤 손승범이 부른다. 소프라노 김선희는 이소연의 시 ‘아리수연가’, ‘첫사랑’을 들려주며 임지연, 박혜경 등은 ‘설화의 갈망’, ‘아카시아 향기 사이로’로 관객들을 만난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연은 ‘현악 5중주를 위한 빛고을 스케치’를 연주한다. 3악장까지 각각 채송화(바이올린), 김주영(비올라), 김황균(첼로) 등이 선율을 만들 예정. 이외에도 소프라노 윤한나가 ‘바다오페라’, ‘음악정원’을, 테너 나영오가 문병란 시 ‘무등산’, ‘인연서설’ 등을 부른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김성훈 작곡가는 전남대학사, 중앙대 석사 이후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러시아 극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광주음악협회 회장, 광주예총 부회장, 광주작곡가협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작곡가 김성훈은 “이번 공연에는 기존 가곡과 합창곡 등에 관현악 반주를 붙이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했다”며 “특히 합창곡 ‘사랑합니다’는 처음 선보이는 초연작이기에 곡의 이채로운 매력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광주 축제

22일 5·18민주광장서 김장담그기·명인 열전·축하공연 등

송가인

올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남도 김장대전’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 등은 ‘김치의 날’을 공식 선포하고 기념행사 등을 열어오고 있다. 하와이에는 곧 김치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이며, 미 연방하원 감독위는 ‘김치의 날 결의안’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K-푸드 열기의 주축 ‘김치’를 매개로 광주의 맛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지는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바로 그것.

행사는 방송인 럭키 등이 진행하며 전남 진도 출신의 트롯 퀸 송가인, 2021 미스트롯2 4위에 오른 김태연의 축하공연도 오후 3시부터 펼쳐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치의날 ‘11월 22일’에 맞춰 총 1122명이 한 자리에서 1만 포기 김장 담기에 도전한다. 시민, 학생, 오월어머니회, 고려인마을, AI페퍼스 배구단 등을 비롯해 광주은행, 광주대, 동신대 등 단체가 대거 참여해 김장 문화를 체험한다. 완성된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한다는 계획이다.

김치대전을 기치로 내거는 만큼 대통령상을 받은 김치 명인들이 출전하는 ‘남도김치 명인 열전’도 볼거리. 박혜란 명인은 낙지, 새우, 전복 등을 첨가해 ‘복분자효소수 삼백보쌈김치’를 선보이며 맨드라미를 우려 백김치 국물을 만드는 곽은주 명인의 ‘맨드라미백김치’ 등 이색 김치 레시피를 시민들에게 전수한다.

지역 종가의 전통을 잇는 ‘종가김치 전시회’도 열린다. 고종시배추김치, 씨간장고들빼기, 자애 젓배추김치 등 25종의 김치를 김지현(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재연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이남 작가, 반고흐 뮤지엄 개관 50주년 기념식에 공식초청

25일 기념행사 참석

반고흐의 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이 반고흐 뮤지엄 개관 5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을 받아 눈길을 끈다.

반 고흐 뮤지엄은 고흐 사후 동생인 테오에게 상속됐던 작품을 토대로 1973년 개관한 이후 생애를 구분해 고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14일 이이남 스튜디오는 “이 작가가 빈센트 반고흐의 동생 테오 반고흐의 증손자이며, 반고흐 뮤지엄의 이사회 고문 윌리엄 반고흐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며 “네덜란드 방문 일정은 오는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이며, 이 작가는 25일 열리는 뮤지엄 개관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반 고흐의 작품세계를 이야기하는 자리로 전 세계 25명만 초청됐다. 이번 이 작가의 반고흐 뮤지엄 방문은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작가는 “미디어아트의 작업에 전념할수록 빛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고민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고흐의 작품의 영감을 받았다”며 “과거 사람들은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술작품으로 연계했는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고흐의 자화상은 빛의 연구에 좋은 소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빛은 보이지 않는 감정을 전달하는 비물질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흐의 그림을 디지털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작가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개관 기념전 ‘세계기록유산, 인류의 빛이 되다’전 작품을 전시중에 있다. 하반기에는 프랑스를 비롯해 이스라엘 국제미디어 전시, 두바이/싱가폴 아트페어, 이탈리아 개인전(24년) 등 국내를 넘어 세계 관객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 중에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2년 반고흐 뮤지엄에서 윌리엄 반고흐(왼쪽)와 함께한 이이남 작가. 〈이이남 스튜디오 제공〉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